

양순열 개인전

《어머니, 오뚝이(Motherly Ottogi)를 세우다》



〈오뚝이(Motherly Ottogi)〉

2021

카 페인트 레진

130x60x60cm

전시제목 : 양순열 개인전, 《어머니, 오뚝이(Motherly Ottogi)를 세우다》

전시기간 : 2022년 8월 26일(금) – 2022년 9월 25일(일)

전시장소 : 학고재 SPACE 2

[오프라인]

(서울 종로구 삼청로 50)

출 품 작 : 회화 23점 조각 197점

총 220점

학고재 오름(OROOM)

[온라인]

(online.hakgojae.com)

회화 23점 조각 24점

총 47점

문 의 : 02-720-1524~6

담 당 우정우 wcw@hakgojae.com

김연윤 claire_7942@hakgojae.com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20826-20220925_양순열, 어머니,

오뚝이를 세우다

1. 전시 개요

학고재는 8월 26일(금)부터 9월 25일(일)까지 양순열(b. 1959, 경상북도 의성) 개인전 《어머니, 오뚝이(Motherly Ottogi)를 세우다》을 개최한다. 학고재에서 여는 개인전은 지난 2007년 《호모 사피엔스》 이후 15년 만이다. 양순열은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 회화 23점과 조각 197점 총 22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 품 안에서 느꼈던 따스함과 어머니와 손잡고 나들이했던 자연은 여전히 작가의 영감의 원천이다. 작가의 조형세계는 꿈과 사랑 그리고 어머니로 나타난다. 작가는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한 어머니 길에서 아득 하면서도 평화롭고 자유스럽게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 흘러 가고 싶은 바램이다.” <오뚝이(Motherly Ottogi)> 작품은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근본적 분리를 해소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이 공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확장된 모성의 회복을 통해 이 시대가 처한 위기의 극복과 인간, 사물, 자연 사이의 영적 교감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 전시 주제

양순열의 호모 사피엔스: 꿈과 사랑을 전하는 에너지의 파장(波長)

작가의 초기 작품들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집 구석에서 발견된 민화, 서예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주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순수를 표현한 동양화이다. 이후 작품 활동의 무대가 대도시로 옮겨지며 자연스럽게 회화, 조소, 설치미술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을 시도했다. '사랑', '어머니', '조화', '균형' 등의 주제이다. 회화 작품들은 다양한 크기의 원형 형태들을 사용하여 불규칙적으로 날카로운 모서리의 형태들을 섬세한 색채의 추상적인 배경 위에 배치했다. 정통성에 충실한 작업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호모 사피엔스> 시리즈 작업으로 확장된다. 불안정한 형태를 지닌 조각들은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 서문을 쓴 최은주 대구미술관 관장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작가와의 대화중에 이 시기 호모사피엔스 형상들이 지닌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형상들이 서 있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 형상들은 양순열의 그림 안에서 마치 안테나 같은 기능을 한다. 작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인간과 신, 인간의 꿈과 사랑 등에 주파수를 맞추며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온 것이다."

<오탁이(Motherly Ottogi)>: 범우주적 모성(母性)의 회복을 통한 시대 위기의 극복

팬데믹과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인류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필수불가결하다. 인간 중심적 사고는 정신과 물질,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 분리해왔다. '인류의 종말'을 자각하며 '세계의 구원'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 펼쳐진다. 그 중심에 작가 양순열의 작품 <오탁이(Motherly Ottogi)>가 있다. 오탁이는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분리를 해소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의 공생(共生)을 제안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사물중심주의로 전환을 요구하는 '신유물론'적 사유와 연결된다. 작가는 시대 문제의 대안으로 '모성(母性)'을 언급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아내는 그릇이다. 작가는 "존재의 탄생이 모두 어머니로부터 왔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삶의 근원적인 본질을 모성(母性)에서 찾는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예술이 진부해 보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장 진부한 것이 가장 중요할 때도 있다. 삶이 불행으로 가득하고 또 언젠간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부한 사랑이 전부 일지도 모른다. 끼니를 제때 먹었는지 걱정해 주고, 소나기가 내릴 것 같은 날 우산을 챙겨주는 어머니. 이런 소소한 사랑에 인간은 비극에 파묻히지 않고 희극을 개척한다. '모성의 화가' 양순열처럼.

3. 작품 소개



〈현현(玄玄) 53〉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과슈

200x200cm



〈현현(玄玄) 62〉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117x80cm



〈현현(玄玄) Line-1〉

2022

캔버스에 아크릴릭 과슈

195x440cm



〈오뚝이 (Motherly Ottogi)〉

2021

카페인트 레진

130x60x60cm



〈호모 사피엔스 10〉

2022

브론즈에 카페인트

43.5x41x48.5cm

학고재에서 여는 개인전은 지난 2007년 《호모 사피엔스》 이후 15년 만이다. 2006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 회화 23점, 조각 197점 총 22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우는 크기의 대형 회화부터 작은 크기의 조각까지 장르와 규모가 다양하다. 먼저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품 〈현현(玄玄) 53〉(2022)이 중앙에 자리한다. 전통 오방색 중 황(黃), 청(靑), 적(赤)과 현대적 색감이 합해진 다채로운 색채의 작품이다. 이어서 작품 〈현현(玄玄) 62〉(2022)은 사람의 형태를 갖춘 오뚝이의 윤곽들이 돋보인다. 화폭 속에 유유히 떠오르는 곡선들은 마치 좌우로 흔들리는 오뚝이의 흔적을 떠올리게 한다. 화풍은 단순화된 구도, 밝고 온화한 색상, 인체의 기호화가 눈에 띈다. 화면 속 분위기는 낭만적이고 동양적이다. 작업은 불명확하나 호기심과 관찰을 유발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전시장 지하 1층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대형 작품 〈현현(玄玄) Line-1〉(2022)은 오뚝이 마더의 형상을 표현했다. 인류의 번성과 발전의 근원인 모성을 주제로 태초 빅뱅 이후 팽창하는 우주의 역동성을 담았다. 담채의 맑고 은은한 우리의 빛깔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기운의 선묘가 드러난다. 담담하고 소소한 그림의 격조에 그리움이 묻어 나온다. 맑고 고운 것, 소박하나 그윽한 것, 양순열의 작품에서 우러나오는 전통의 미(美)이다.

이어서 작품 〈오뚝이 (Motherly Ottogi)〉는 어머니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단계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원형 곡선이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깊은 정신을 지닌 입체의 집합체이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모성애로서 자식과 세상을 감싸 안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오뚝이는 스스로 일어선다. 이번 전시 서문을 쓴 최은주 대구미술관 관장은 이와 같이 언급했다. “모성(母性)은 태초의 우주로부터 기원된 근원적 에너지이면서 지금까지도 강력한 파장으로 인간과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이다.”



〈호모 사피엔스 17〉

2022

브론즈

18.5x17x48.5cm

작품 〈호모 사피엔스〉 시리즈는 작가가 30여 년 동안 진행해온 작업이다. 일생 동안 스쳐간 인연으로부터 느낀 각각 다른 내면의 감(感)을 형상화했다. 비슷한 형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다른 형태와 색감을 띄고 있다. 인간의 진화 과정 중 최고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동물적인 본능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예외성에 대한 탐구이다. 작가는 호모 사피엔스를 통해 학명의 존재들이 모여 지구라는 행성에 문명의 탑을 쌓았으며, 이 문명은 특정 개인 또는 무리의 창조물이 아닌 다양한 부류의 인류에 의한 지혜의 산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4. 작가 소개

양순열은 1959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났다. 효성여자대학교(現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도에서 2006년까지 동양화와 강의를 진행하고 겸임교수로 지냈다. 벽아미술관(대구)을 시작으로 자하미술관, 인디프레스, 학고재 등 국내 주요 기관과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각지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21년에는 경상북도청에서 '모성적 공간'에 대한 전시를 열었다. 문화역서울 284, 엘가 위머 PCC 갤러리(뉴욕), 가나아트센터 옥션홀, WTC 아트 갤러리(로테르담, 네덜란드)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출품했다. 1997년 제 3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백상미술상, 2010년 현대미술 55인 선정 작가 수상(예술의전당, 서울), 2020년 제 40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을 수상했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오탁이 (Motherly Ottogi)를 세우다

최은주(대구미술관 관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한 그 위대한 순간 이후로, 인간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초월한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양순열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큰 화두이다. 그리고 그는 일상의 어느 순간에서도 그 질문을 놓쳐버린 적이 없었던 작가임을 40여 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작업이 보여준다. 심지어 1990년대 전반기에 이 작가가 그린 꽃, 나무, 자연풍경을 보게 되면 그때에도 이미 이 작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매우 원대한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감지하게 한다. 붓질에는 자신이 있었던 양순열은 그의 눈에 닿는 자연의 모습들을 소중히 그려냈다. 이 시기 양순열이 그린 그림들을 살펴보면 식물의 줄기는 무성하기 짝이 없고 다소곳해야 할 꽃잎의 모양새는 방사선으로 뻗어 나간다는 느낌을 준다. 옥수수를 그린 그림에서 옥수수 줄기는 화면 바닥에서 끝까지 치솟아 화면을 뚫고 나갈 듯 힘찬 기세를 보여준다. 2003-4년 연간에 그린 <화심(花心)> 시리즈에서는 물갈퀴를 사용해서 대상물의 모습을 생략하거나 과장하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그림들에서 작가는 꽃을 구성하고 있는 꽃대 한 줄기, 흐드러진 꽃잎 한 잎 한 잎에 마치 우주적 질서를 다 담으려는 듯 결연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시기 종이 위에 잉크와 펜을 사용해 그린 드로잉들은 선묘와 흠뻑리기 기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식물의 형상성을 훨씬 뛰어넘는 표현력을 드러낸다. 자연의 대상물을 재현할 때조차 작가의 의식은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 보다 더 광활한 우주적인 차원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1998년 양순열은 운주사를 답사하고 그곳에서 부처의 형상을 그린다. 처음에는 부처의 형상을 단독으로 묘사했지만 어느 순간 부처의 형상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덩어리로 분리되는 듯이 그려졌다. 부처에서 인간이 분리되는, 혹은 인간에서 부처가 탄생하는 무의식의 발로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무튼 반복되는 부처의 그림들 속에서 양순열은 “호모사피엔스”라는 그의 필생의 주제를 도출해 내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 시도됐다. 다분히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그린 2007년의 <경배>, <욕망>, <깨달음>은 전기 “호모사피엔스” 시리즈의 종결판 같은 작품들이다. 세로 길이만 2M가 넘고 가로 길이가 4M, 5M가 넘는 대형 캔버스에 양순열은 인간의 욕망과 그와는 상반되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경배감, 존재론적 깨달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우선 <욕망>이란 작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회색빛 톤의 화면에 번데기 같은 덩어리 형상 5개가 그려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 욕망의 형상화를 통해 작가는 욕망에 기인한 불안과 위태로움, 파국 등에 대한 상징적 언급을 시도했다. 반대 지점에 <경배>와 <깨달음>이 놓여 있다. 양순열은 <경배>라는 작품에서 두 사람의 인물을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에 그려 넣었다. 인간의 형상은 자세히 묘사되기보다는 인체 형상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거칠게 그려졌는데 이런 표현방식은 오히려 <경배>하는 인물들의

경건한 마음가짐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양순열은 어떤 미동에도 흔들림 없는 강건한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다. 대지에 굳건히 발을 딛고 고개 숙여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은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깨달음>이라는 작품은 <욕망>과는 전혀 다른 인간과 자연 혹은 초월적 존재를 향한 신성한 마음의 은유를 보여준다. 마치 모아이 석상처럼 머리와 몸통으로만 구성된 원형적 형태의 인간이 화면을 가득 채운 이 그림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경배V의식을 수행하는 인간 군상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아득히 먼 고대의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수행되었을 거룩한 의식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깨달음>이라는 작품은 2006년에 그려진 작가의 작은 드로잉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다. 이 작은 드로잉에서 작가는 붉은 태양을 화면 오른쪽 위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선들을 그려 넣고 붉은 물감으로 채색했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의 서명이다. <二〇〇六 太陽人 順烈>이란 또렷한 서명에서 우리는 작가 양순열이 어떤 각오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 운주사 부처의 드로잉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관심이 화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일체화되어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서명이다. 작가와의 대화중에 이 시기 호모사피엔스 형상들이 지닌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형상들이 서 있는 형태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이 형상들은 양순열의 그림 안에서 마치 안테나 같은 기능을 한다. 작가는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며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우주, 인간과 신, 인간의 꿈과 사랑 등에 주파수를 맞추며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온 것이다.

양순열이 2009년에 그린 <꿈과 사랑 어머니꽃(Dream & Love Motherly Flower)>이라는 작품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80x180cm, 족자 그림의 형식을 빌린 화면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수묵기법을 사용했는데 화면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거칠고 진한 먹물의 번짐이 자리 잡았다. 화면의 중앙에는 뭔가 솟구치는 밝은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로 꽃의 형상과 하트의 형상이 오버래핑 기법으로 그려져 있다. 양순열의 나이 오십, 지천명의 세수에 이르러 작가는 작품의 제목처럼 어머니꽃을 그렸다. 그런데 화면의 중앙과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등장하는 배부른 여성의 형상, 생명을 배태한 어머니의 표상이 금색 물감으로 슬며시 그려져 있다. 이 여성을 금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양순열은 영원히 변치 않는 모성애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집요한 탐색이 모성애라는 주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 작품이 보여준다.

호모사피엔스와 모성애라는 주제가 양순열의 예술세계에 등장한 이후로 이 작가의 작업 역량은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Dream & Love>시리즈, <클라라 슈만(Clara Shumann)>같은 초상 시리즈, 2009년 이후에 등장한 <아버지의 의자>, <백미러>, <땅콩>, <위커의 조국>같은 오브제 작업들을 거치면서 양순열은 그의 모든 감각, 모든 감수성, 모든 환상과 상상까지를 다루는 창작의 열병을 견뎌냈다. 양식적으로는 표현주의와 초현실주의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양식을 드러낼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른다. 이 단계에서 등장한 것이 양순열의 가장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는 오뚝이 조각과 오뚝이 형상이 후기 호모사피엔스의 회화적 비전으로 완성되는 <현현> 시리즈이다.

오뚝이 조각은 2011년부터 제작됐다. 처음에는 양순열의 그림에 소품처럼 나타나는 소재였던 오뚝이는 손안에 들어갈 만큼 작은 크기로, 작은 아이만 한 크기로, 등신대의 크기로, 혹은 3-4M의 큰

키를 가진 조각으로 만들어져 세계 곳곳에서 전시되었다. 긴 치마를 입은 어머니 형상의 오탁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모성애로서 자식과 세상을 감싸 안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양순열의 오탁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다. 작가노트에서 양순열은 자신의 오탁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 오탁이 Ottogi

네 마음의 汝 너의 오탁이

내 마음의 我 나의 오탁이

미술가의 상상세계로 오탁이 형상을 어머니 형상으로 모성을

투영해 보았다. 모성은 늘 사랑과 믿음, 비움과 속임의 본질로

가능하다. 모성은 우주와 한마음이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나아갈 때 가능하다. 우리 삶이

우상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부정 같은 에너지 덩어리 자체이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부정 같은 에너지 덩어리’인 모성은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까? 그에 대한 답은 <현현(玄玄)>에 숨어 있는 듯하다. 특히 작년과 올해 집중적으로 그려진 <현현> 회화들은 오탁이 조각이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모성의 우주적 차원에 대한 언급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 2021년에 그려진 <현현유희> 연작을 보자. 양순열은 캔버스의 바탕을 칠흑처럼 검게 만들고 그 위에 작은 원들을 그려 넣었다. 그 원들은 바탕면에 비해 작지만 밝게 채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현유희>를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연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별처럼 그려진 원들이 해체되어 선으로 연결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정돈된 선으로 뭉치더니 양순열은 그 선들에서 오탁이 형상을 소환해 내고 있다. 작가는 이 그림을 오탁이 그림이라고도 부른다. 최근에 오탁이 형상은 일종의 만다라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양순열은 모성이 태초의 우주로부터 기원된 근원적 에너지이면서 지금까지도 강력한 파장으로 인간과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양순열은 이제 인간의 갖가지 욕망과 그에서 빚어지는 인류세의 종말을 순수한 모성으로 극복하자고 이야기하는 예술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메시지는 그의 페르소나, 어머니 오탁이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서,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마천루의 대도시에서, 인간과 동물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황무지에서 양순열의 어머니 오탁이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류의 구원과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게 해 주는 존재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가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의 중심에 어머니 오탁이를 굳건하게 세워 모성의 힘을 다시 일깨우는 예술가, 양순열이 있다.

다시 <玄玄>에 관하여

윤재갑(큐레이터)

며칠 전에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호모 사피엔스들에게 우주의 신비를 가득 담은 선명한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한 여름밤에 도착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이 이미지들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심우주(深宇宙, Deep Field)'를 마주한 후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우주 공간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환호성을 불렀을 겁니다. 아마도 로마 교황청 사제들은 넓고 넓은 우주 속 그 어디에도不在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고, 하안거 중이던 스님들은 화엄경의 인드라망이 과학에 의해 '공식적' 지식의 지위를 얻었다고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제임스웹이나 허블망원경이 보내온 신비롭고 황홀한 사진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전율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시각에 의지하여 이미지를 생산하는 화가들이나,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터들에게는 심각한 좌절을 안겨 주곤 합니다. 인간의 눈은 망원경이나 현미경과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퇴화된 감각기관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 안에 들어있는 우주나 세포의 세계를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미술은 눈이라는 인간의 신체성과 자연의 가시광선이라는 스펙트럼 안에서만 작동되어왔으며, 언제나 뉴턴역학이 지배하는 지구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었고, 문화인류학이나 미학이라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서사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화가들이야말로 이러한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2차원 평면에 갇힌 <플랫랜드>의 사각형 주인공과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랫랜드>는 2차원 평면 세계에 살고 있던 사각형이 어느 날 3차원 공간을 조우하면서 세계를 새롭게 인식해 나간다는 수학 소설입니다. 이 책은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 등 당대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놀란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에게도 다양한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책이 존재가 속한 다양한 기하학적 차원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생성'과 '문명의 탄생'들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순열 작가 역시 화가인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혀온 두 가지 제약, 시각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와, 2차원 평면에 갇힌 회화의 한계를 온몸으로 겨안은 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신체성과 회화의 평면성이라는 약점을 겸허히 받아들인 그곳에서 생물과 무생물, 인간과 기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가 시작되고, 화면 속의 이미지들은 서로 끝없이 연결합(連結合) 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2차원 평면은 언제나 공간과 맞닿아 있고, 그 공간은 시간과 일체가 되어 독자적인 우주를 형성해 나갑니다. 마치 설계도면이 건축물이 되고, 오선지 위의 음표가 교향곡으로 울려 퍼지듯이, 흩어져 있던 시간-공간-물질-에너지가 격렬하게 통합되며 새로운 차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유전자(gene)와 밈(meme)들이 힘차게 약동하며 풍요롭고

장엄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순열의 작품들은 언제나 밝고 생기있는 에너지의 파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은 그 속에 '빈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기가 가득 찬 풍선처럼, '빈 공간'이 없다면 어떤 팽창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무엇보다도 허블망원경도 없던 그 시절에 우주 속의 그 '빈 공간'을 상상하고 확신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동양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無나 空으로 불려온 곳입니다. 동양사상과 아인슈타인의 현대물리학이 만난 곳도 바로 이곳이고, 제임스웹이 포착한 우주가 팽창하는 순간도 바로 이 '빈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빈 공간'은 양순열 작가 앞에 놓여 있는 빈 화면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굴절되고 접합하며 영원히 새로운 사물과 차원을 생성해 나가고 있는 곳, 언제나 밝은 에너지와 생명의 약동으로 가득 차 있는 양순열의 화면 말입니다. 이 발견으로 그동안 신비주의나 미신으로 폄하되던 종교와 예술의 영역, 특히 동양의 종교와 철학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이성이 끝없이 연결합 되는 바로 이 '빈 공간'에서 '우주적 종교'를 통각 했노라고 말합니다. 이 위대한 물리학자가 고백한 궁극의 체험은 화엄경에서 깨달음의 마지막 경지로 남겨둔 '不可思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깨달을 수 없음을 깨달으려는 것처럼, 양순열 작가도 2차원 평면에 결코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를 손에 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玄玄> 작업은 항상 이 점을 일깨웁니다. 이런 점에서 저에게 양순열은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향해 의식의 전부를 열어놓고 있는 허블망원경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뿐만 아니라 인간도 不可思議한 존재로,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신비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7. 작가 약력

양순열

1959 경상북도 의성 출생
 1995 호성여자대학교(現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95 호성여자대학교(現 대구가톨릭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1996-2006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강의 및 겸임교수
 서울에서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2022 어머니, 오뚝이를 세우다, 학교재, 서울
 2022 현현 이피퍼니, 국회의원회관, 서울
 2021 현현 이피퍼니, 인디프레스, 서울
 2021 양순열: 대모신(大母神) 오뚝이, 경북도청 동라관, 안동
 2019 애니마/애니머스 오뚜기,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2019 본 랩소디 인 하이포스테이시스, 자하미술관 서울
 2018 랩소디 인 레드,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2017 양스 위먼 위드아웃 마이 암스 투 언더스탠드, 쿤스츠틸린 알크마르,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7 메이크 어 저니 투 더 마더스 포레스트, 데 아미스 갤러리, 바우트리험, 네덜란드
 2016 그림다, 하멜기념관, 호리쿰, 네덜란드
 2015 어머니 꽃 나들이, 객주문학관, 청송
 2014 겨울편지, 포스코 갤러리, 포항
 2012 비욘드 비욘드, 미주리대 갤러리, 미국
 2011 상상세계의 문설주에 기대다, 호텔 인터볼고 아트 갤러리, 대구
 2011 시간의 바다를 깨우다, 갤러리 아트링크, 서울
 2007 호모 사피언스, 학교재, 서울
 2005 화심, 학교재, 서울
 2003 세계일화, 마로니에 화랑, 교토
 2003 세계일화, 원미갤러리, 대구
 2002 세계일화, 원미갤러리, 대구
 1996 양순열, 벽아미술관, 대구

주요 단체전

2022 사물을 대하는 태도,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22 미술의 공진화: 함께 진화한다,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강정보 디아크 광장, 대구
 2019 어 퓨 오브 마이 페이보릿 핑스, 엘가 위머 PCC 갤러리, 뉴욕
 2019 (고) 김윤수선생님 1주년추모, 가나아트센터 옥션홀
 2016 리마인드 해멀 위스 데어, WTC 아트 갤러리, 로테르담, 네덜란드
 2017 리마인드 해멀 위스 데어, WTC 아트 갤러리, 로테르담, 네덜란드

출판

『어머니』(골드센, 2015)

『시간의 숲 공간의 숲이 있었다』(골드센, 2014)

『시간의 바다를 깨우다』(골드센, 2011)

『시간의 가지에 꽃피다』(골드센, 2009)

『호모 사피엔스』(오늘, 2007)

수상

2020 제 40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최우수예술가상 수상

2010 현대미술 55인 선정 작가 수상, 예술의전당, 서울

1997 제 3회 한국일보 청년작가 백상미술상 수상

소장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경상북도청

핸드릭 하멜 뮤지엄, 호린험, 네덜란드

포스코 미술관

객주 문학관, 경북 청송

경상북도경찰청